

‘북핵 위기’ 시진핑, 외교 실권 내각과 나눌까

14년 만에 외교 부총리 부활 여부 주목

‘미국통’ 양제츠 국무위원·왕이 부장 물망

북핵 위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공세 등에 시달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년 만에 외교 부총리를 부활시킬지 주목된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오는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중앙 정치국 진입 및 부총리 승진 여부다.

중국의 외교 수장인 양제츠는 아직 당 지도부인 25명의 정치국원에 포함되지 못했다. 4명의 부총리 중 외교담당 부총리도 없는 상태다. 19차 당 대회 후 양제츠 국무위원이 당 정치국원으로 승진한다면 첸치

천 외교담당 부총리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외교 수장에게 실권이 주어짐을 의미한다고 SCMP는 분석했다.

첸치천은 1988년부터 1998년까지 외교 부장을 지낸 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집권 기간인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외교담당 부총리를 지냈다. 이 기간 그는 당 정치국원으로서 외교 사령탑 역할을 했다. 외교담당 부총리로서 그는 1991년 중·소 국경협정 서명,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1999년 마카오 반환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양제츠의 선임인 탕자쉬안과 다이빙궈 전 국무위원은 당 정치국에 진출하지 못했다. 이는 외교 수장의 격이

한 단계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양제츠의 정치국 진입 여부는 중국 외교의 앞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중요 사안이라고 SCMP는 분석했다. 당의 실질적인 정책 결정 기구인 정치국에 진입할 경우 양제츠는 베이징의 외교 관료를 대변해 외교 정책 결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처럼 중앙이 외교 정책의 실권을 거머쥔 채, 외교 관료들은 당의 들러리 역할만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된다.

중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로 미뤄볼 때 외교담당 부총리의 부활 가능성은 무리였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전직 영국 외교관인 케리 브라운 런던 킹스칼리지 교수는 “파리 협약, 일대일로 프로젝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시 주석이 외교 분야에서 쌓은 업적에

비취볼 때 이제 정치국에 진입해 더 높은 지위를 갖춘 외교 수장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제츠 국무위원이 오랜 기간 대미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미국통이라는 점에서 그의 외교 부총리 중용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고 SCMP는 분석했다.

양제츠 국무위원은 오랜 기간 주미 중국 대사를 지냈으며, 아버지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아들 부시 전 대통령 모두와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미·중 관계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그의 이러한 경력과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양제츠 국무위원이 19차 당 대회 후 물러나고, 왕이 외교부장이나 시 주석의 측근인 쑹타오 당 대외연락부장이 외교 수장 자리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문무에 뛰어난 배행검

배행검(裴行儉, 619-682)은 강주 문회 출신으로 자는 수약이다. 당 태종, 고종 때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리로 사람보는 안목이 뛰어났고 돌궐 대적을 담당해 공을 세웠다.

수나라 장군 배인기의 아들로 태종 때 과거 명경과(明經科)에 합격해 관리의 길에 들어섰고 순조롭게 승진해 장안령(長安令)에 올랐다. 음양과 역술에 밝고 서법에 능했는데 특히 초서와 예서에 뛰어났다. 고종은 왕후를 폐하고 총애한 무축전을 새 황후를 삼으려 했다. 그는 국가의 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고명대신 장손무기, 저수량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원공유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무축전의 어머니 양씨에게 알리니

고 “경은 문무의 자질을 겸해 갖추었으니 이에 경에게 두 개의 직책을 주겠소”라며 예부상서겸 검교우위대장군을 제수하였다. 그를 정양도행군대총관으로 삼아 18만 군대를 거느리고 돌궐을 토벌토록 하였다. 장군 정무정과 이문간도 30만명을 인솔해 그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3월 돌궐을 내몽골 흑산에서 대파해 죽장인 아사덕봉직을 생포했다. 그는 돌궐을 속이는 작전을 폈다. 양식 운반 수량 300량을 거짓으로 만들고 매 수레마다 장사 5명씩을 숨기고 병사를 험한 요새에 숨겼다. 적들이 도착하자 당군은 수레를 버리고 흩어져 달아났다. 그들이 안장을 풀고 식량을 빼앗으려 하자 장수들이 수레 안에서 뛰어내리자 공격해 승리를 거두었다.

681년 돌궐의 아사나복님이 아사덕

돌궐 토벌한 장수... 무축전 즉위 반대

서주도독부 장사로 좌천되었다.

그는 인재를 선별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당 건국 이래 오랫동안 평화로운 시기가 계속되고 인구도 늘어 관리를 쓰는 일이 많아졌다. 그는 장인의와 함께 관리 임명을 공정, 투명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지방인 주변의 관리의 승급, 강등, 평가에 관한 표준을 만들었다. 이러한 제도는 당나라가 망할때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돌궐과 토벌 등을 순무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677년 돌궐의 가한 아사나도지와 그의 부관 이자복이 토번과 연합해 안서 지방을 침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조정에서 토벌 대책을 논의했는데 그는 “토번이 노략질하고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찌 군사를 서쪽으로 보낸단 말입니까? 지금 파사왕이 죽고 그 아들 니원사가 장안에 인질로 와있으니 자기 나라로 돌아가 즉위하면 될 것입니다”고 주장했다. 고종은 그를 안무대식사로 임명해 니원사가 돌아가 즉위토록 돕는 일을 명하였다. 서쪽 지방으로 군사를 이끌고 한가히 사냥하는체 하면서 기습적으로 아사나도지 군영을 공격해 그를 사로잡았다. 이어 정예의 기병을 뽑아 주야로 달려 이자복의 항복도 받아냈다. 아사나도지와 이자복을 달래 돌려 국도록 조차했다.

679년 고종은 그에게 연회를 베풀

은부와 연합해 변경을 노략질했다. 그는 다시 태종에게 임명되어 조희순과 이문간을 부총관으로 삼아 토벌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산서성 형구에 진을 치고 간첩을 많이 풀어 돌아서로 시키고 의심토록 계책을 꾸렸다. 결국 아사나복님은 아사덕운부를 잡아 항복을 청하였다. 말을 보는 기병이 먼지가 하늘에 닿게 하면서 오고 있다고 보고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는 마침내 아사나복님이 아사덕운부를 잡아가지고 항복하는 것이니 다른 도적은 아닙니다.” 돌궐의 남은 무리를 평정하고 그들을 데리고 장안으로 돌아왔다.

당초 처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재상 배행이 그의 공을 시기해 처벌 상소를 올렸다. “아사나복님은 부장 장건욱과 정무정이 압박을 받았고 또 회홀 등이 북에서 그들을 압박하니 처지가 어려워져 항복한 것입니다” 결국 일행 54명을 장안 저잣거리서 참수했다. 그는 탄식해 말하기를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공로를 가지고 다루는 것은 수치스런 것이다.” 이후 병을 핑계로 조정에서 나오지 않았다. 682년 64세로 죽었다. 시호는 현이고 저서로 「배행검집」 등을 남겼으나 없어졌다. 사치치원자 당선기식 이후제(士之致遠者 當先器識 以後才藝). “선비는 먼길을 가는 자이니 그릇과 식량이 먼저고 이후 재주와 기예다.” 그가 남긴 명구다.

김정은 이미지 관리·외화벌이

NYT, 북한 해커단 분석 보도

북한이 핵무기 미국 본토를 타격할지에 모든 관심이 쏠린 사이 북한은 조용히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해킹 능력을 키우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6000 명이 넘는 해커로 구성된 북한 해커 군단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북한 사이버 공격을 추적해온 미국·영국 보안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은 이미 서방 적국에 맞서 해킹 능력을 드러내고 있지만,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불러온 핵·미사일 실험과 달리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처벌은 거의 없었다.

북한의 구식 인프라는 사이버 보복에 덜 취약한 데다가 북한 해커들은 외국에서 활동해 북한에 가해진 여러 제재가 효과가 없다고 NYT는 설명했다.

크리스 잉글리시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 부국장은 “사이버는 북한에 맞춤형 공격 도구”라며 “조기 비용이 적게 들고 어느 정도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돼 국가와 민간 인프라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적으로 정교해져서 아니라, 매우 적은 비용으로 모든 목적을 달성해서 그들은 지구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이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YT는 북한의 해킹 목적을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이미지를 보호하려는 정치적인 목적과 돈을 벌려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분류했다. 북한은 랜섬웨어, 디지털 은행 강탈, 한국 비트코인 해킹 등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정보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엘런, 올해 연준 금리 인상 시사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32회 주요 30개국(G30) 국제 은행 연례 세미나에 재닛 엘런(왼쪽)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과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엘런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2%)를 밑도는 것에 대해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 언론은 엘런 의장이 연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했다. /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32회 주요 30개국(G30) 국제 은행 연례 세미나에 재닛 엘런(왼쪽)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과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엘런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2%)를 밑도는 것에 대해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 언론은 엘런 의장이 연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했다. /연합뉴스

오스트리아 총선 우파 1위...연정 땀 31세 총리 나올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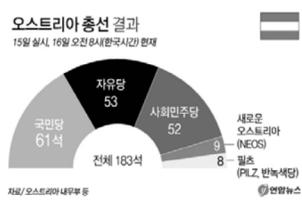
쿠르츠 대표

15일(현지시간) 치른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중도 우파 국민당이 1위를 차지했다.

국민당은 2위를 차지한 극우 자유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31세 총리의 탄생이 예고됐다.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개표를 거의 마친 결과 국민당이 31.4%로 1위를 차지하고 자유당이 27.4%, 사회민주당이 26.7%로 뒤를 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31세의 젊은 당 대표인 제바스티안 쿠르츠가



이전 국민당이 원내 제1당으로 확정됐다. 자유당은 제2당으로 국민당과 연정을 꾸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작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에 후보조차 못냈던 국민당은 쿠르츠가 당 대표를 맡은

뒤 지지율이 급상승해 40여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한 차례만 제외하고 줄곧 30% 초중반의 지지율로 1위를 달렸다.

연립정부의 외무장관인 쿠르츠는 반란민 정책을 공약으로 걸고 지중해 난민 루트 폐쇄, 난민 복지 축소 등을 약속하며 자유당으로 옮겨온 우파 유권자들을 돌려세웠다. 불과 5개월 만에 당을 일으켜 세운 쿠르츠는 ‘분더부치’(독일어로 능력자라는 의미), ‘원더보이’, ‘선거의 귀재’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이번 총선 후 총리로 취임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민주 선거로 뽑힌 가장 젊은 정치지도자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우리 금수강산이 묘지장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 · 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